

#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셸프리더십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유 민 영\* · 이 속 정\*\*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흥미와 여건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고, 대학생 시기는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을 선택하여 사회에서의 자아실현을 준비하는 시기이다(Kim & Kim, 2020). 그런데,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 학생들과 다르게 안정적인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취업을 하게 된다(Park & Park, 2021). 간호대학생 시기에 간호 전문직으로서 진로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취업을 하게 되면 임상 현장에서 부적응과 이직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간호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충분한 진로 탐색 과정이 필요하다(Gung & Seo, 2018).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직업에 흥미, 능력,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자기 확신 정도를 의미하고(Holland, Gottfredson, & Power, 1980) 직업을 선택, 결정,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Browne, Wall, Batt, & Bennett, 2018). 간호대학생 시기에 진로정체감 형성은 자신감과 소속감에 영향을

주며 간호사로 근무 시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자 근무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 부여 요인이 된다(Gilvari, Babamohamadi, & Paknazar, 2022). 취업 후 1년 이내 자진 퇴사한 신규간호사는 간호업무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간호대학생 시기에 진로정체감에 대한 고민과 탐색이 불충분했던 것이 이직의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직업적 목표 의식의 결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m et al., 2015). 이처럼 긍정적인 진로정체감은 간호인력 유지에 영향을 미치며(Mao, Lu, Lin, & He, 2021), 신규간호사의 초기 이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올바른 간호 가치를 형성하게 하고 간호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Hu, Wang, Lan, & Wu, 2022).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간호사로 진로를 선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연결되기 때문에 대학 시기에 진로정체감 확립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Kim & Kim, 2019). 한편,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교과 및 비교과 경험(Jung, 2018) 및 재학 중의 일 경험(Gilvari et al., 2022) 등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바른 간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https://orcid.org/0000-0002-1616-606X>)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https://orcid.org/0000-0001-9386-9204>) (교신저자 E-mail: [lsj1109@cau.ac.kr](mailto:lsj1109@cau.ac.kr))

• Received: 20 February 2023 • Revised: 23 March 2023 • Accepted: 3 April 2023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ee, Suk Jeong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Republic of Korea.(postal code:06974)  
Tel: +82-2-820-5983, Fax: +82-2-824-7961, E-mail: [lsj1109@cau.ac.kr](mailto:lsj1109@cau.ac.kr)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전공과 진로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여 직업적 확신을 갖게 하고(Tessema, Ready, & Yu, 2012), 진로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Yang & Lee, 2012)을 할 뿐 아니라 졸업 후 간호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Wei, Zhou, Hu, Zhou, & Chen, (2021). 그런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간호대학 교육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져 전공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동시에 진로정체감의 혼동을 경험할 수 있다(Kim & Kwon, 2018).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 적응을 잘하며 문제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이 높아(Jung & An, 2019) 간호교육 초기부터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Dancot et al., 2021)

한편, 대학생 시기에 셀프리더십은 진로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Shin, 2014). 셀프리더십이란 자신이 스스로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적 리더십이며, 자기효능감을 높여 자아 완성으로 이끄는 학습 과정이다(Manz, 1986). 이러한 셀프리더십은 대학생 시기에 더욱 중요하고 이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구체적으로 진로의 목표를 설계하고 적극적인 진로 준비 및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Kim, Lim, & Kim, 2020). 셀프리더십이 뛰어난 대학생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과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Shin, 2014).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전공 만족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Nam & Lee, 2019),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im et al., 2020). 이처럼 간호대학생 시기에 확립되는 셀프리더십과 자아존중감은 추후 간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개념으로(Nam & Lee, 2019), 간호대학생 시기에 이를 파악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면 진로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아존중감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에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셀프리더십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받고,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과 준비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 연구에서도 졸업 학년(Kim & Kim, 2020)이나 일부 학년(Kim & Ko, 2020; Yang & Lee, 2012; Gilvari et al., 2022; Wei et al., 2021)과 같이 특정 학년 대상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드물었다. 또한, 진로정체감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학점, 관심, 재학 중의 일 경험(Gilvari et al., 2022)이 있었고, 중국 학생들의 진로정체감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학년, 나이, 직업계획, 교육 수용 등이 확인되었지만(Wei et al., 2021)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이 동시에 진로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파악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 그리고 진로정체감 수준을 조사하고,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이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명확하고 바람직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 그리고 진로정체감의 수준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이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 진로정체감의 수준을 파악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확인한다.
- 셋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셀프

리더십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입결 수준이 유사한 전라북도예 소재하고 간호 교육인증 평가원에서 간호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6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편의 표출했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 3.1.9.7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간호대학생 대상 진로 정체감 관련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Kim & Ko, 2020)를 토대로 예측변수를 13개로 하여 검정력 0.95, 효과크기 0.15로 하고 유의수준을 0.05로 적용한 결과 필요한 표본 수는 189명이 산출되었으며, 탈락을 10%를 고려하여 20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전화 및 방문으로 학과장 또는 소속 대학교수에게 연구의 목적 및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가능 허락을 받았다. 해당 대학교의 학생 대표 및 학과 조교 인 대표자 1인에게 연구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포함된 대상자 모집 공고문과 함께 설문 링크를 메시지 또는 메일을 통해 전달하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공고문이 포함된 설문 링크를 직접 접속하여,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문 응답은 1회로 제한을 두었다.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07일까지 응답 기간을 지정하여 기간 내에만 응답 가능하도록 설정하였고, 인원은 208명으로 제한을 두어 인원 모집이 완료되면 온라인 설문을 할 수 없도록 설정하였다. 응답에는 15분 -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응답 완료 후 답례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는 총 198부가 회수되었고 중복 응답한 설문지 3부와 불성실한 응답 3부는 제외하여 분석에 필요한 기준에 충족된 192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문항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대학생활 관련된 특성 등 총 14개로 구성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나이, 성별, 학년, 종교 유무를

조사하였다. 대학생활 관련 특성으로 간호학과 진학동기는 '고등학교 성적', '부모님 및 주변 권유', '높은 취업률', '적성과 흥미'의 4개 항목 중 선택하였고, 대학생활 만족도와 전공 만족도는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개 항목 중 선택하였다. 학업성취도는 자료 수집을 기준으로 1년 간의 평균 평점을 A, B, C 학점으로 조사하였다. 동아리 활동과 리더로서의 경험은 유, 무(yes, no)로 조사하였다. 리더십 역량 인지와 대인관계 인지는 대상자 스스로 판단하여 '매우 높다'부터 '매우 낮다'의 5개 항목 중 1개를 택하도록 하였다. 진로 방향은 '졸업 후 희망 진로'와 '졸업 후 10년 이내 예상 진로' 2개의 문항으로 조사하였는데, 졸업 후 희망 진로는 '병원 간호사'를 비롯하여 총 9개의 직업군 중 1개만 선택하도록 하였고, 졸업 후 10년 이내 예상 진로는 총 9개의 직업군 중 복수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 2) 자아존중감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도구(Self-Esteem Scale)를 Jon (197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했으며, 이 도구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긍정 문항 5개와 '자신을 종종 쓸모없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대체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는 부정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총 10문항이며 부정 문항은 역 환산하여 자아존중감을 계산하였다. 각 항목 당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 4점으로 하는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평균 점수로 계산해서 1점 부터 4점 범위의 점수가 산출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Rosenberg(1965)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5였으며, Jon(1974)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62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9였다.

### 3) 셀프리더십

수정된 셀프리더십 척도(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Q (Houghton & Neck, 2002)를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확인한 한국판 셀프리더십 도구(Shin, Kim & Han, 2009)의 저자에게 도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스

스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수행하기 위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기효능감과 행동 통제 및 자아완성의 학습 과정을 측정하며, 행동 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 전략, 건설적 사고 전략의 3개의 하위영역을 포함한다. 총 35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평가하고, 평균 점수로 계산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Shin, Kim과 Han (200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70 ~ .87였고, 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 구분 없이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95였다

#### 4) 진로정체감

진로상황검사(My Vocational Situation, MVS) (Holland, 1980) 도구 중 하위영역인 정체감 척도를 Kwon과 Kim (2002)이 한국 간호대학생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한 도구로 저자에게 도구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진로 선택에 관련한 문항과 간호 직업 선택에 관한 확신 정도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4문항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는 6번을 제외한 모두 문항을 역 환산하고 계산하였다. 평균 점수로 계산하였고 1점부터 4점 범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won과 Kim (2002)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8 였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4 였다.

####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분포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 진로정체감 수준의 차이는 정규분포를 확인한 후 모수의 비교분석(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및 셀프리더십과 진로정체감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고, 대

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변수를 통제한 후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IRB)로부터 최종 승인 (심의번호:10411078-202208-HR-170)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진행함으로 연구대상자의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하였다.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공고문이 포함된 설문 링크에 접속하여 연구의 목적, 방법, 연구 참여 기간, 보상 방법, 정보제공 방법, 비밀 보장 등의 내용의 설명문을 읽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만 자가 보고식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의 자발적 참여 후 연구의 참여에 대한 보상 방법으로 답례품 제공을 위한 연락처를 작성하도록 하였지만, 답례품을 원하지 않을 시 연락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연구 참여에는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였고, 수집된 연구 대상자의 연락처는 답례품 제공 후 영구적으로 삭제하였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며 설문은 연구 목적 외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알리고, 연구 대상자에게 중도에 연구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의 코딩은 연구자가 직접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대상자 번호를 임의로 부여하고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안을 유지하였다. 연구에 사용하였던 자료는 논문작성이 완료된 3년 후에 모두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할 예정이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65명(85.9%)으로 많았고, 평균 연령은 24.0±5.03세였다. 1학년이 29명(15.0%)으로 가장 적었고 4학년이 85명(44.3%)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125명(65.1%)이었고, 간호학과 진학동기는 취업이 88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할 만족도는 89명(46.4%)이 '만족'으로 답했고, 전공 만족도는 94명(49.0%)이 '만족'으로 답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업 성취도는 자료 수집을 기준으로 1년 간의 평균 평점으로 조사했으며 B(3.0~4.0)가 135명(70.3%)이었다. 동아리 활동은 97명(50.5%)이 하고 있었고, 리더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123명(64.1%)이었다. 주관적 리더십 역량에 대한 인지는 보통이 94명(49.0%)으로 가장 많았다. 졸업 후 희망 진로는 9개 직업군 중 병원취업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152명(79.2%)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소 간호사나 보건교사가 24명(12.5%), 외국 간호사가 16명(8.3%)였으며, 나머지 5개 직업군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졸업 후 10년 이내 예상 진로에 대해 중복 응답 중 가장 많은 직업군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155명(80.7%)이었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3.0 \pm 0.53$ 점이었고, 셀프리더십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5 \pm 0.57$ 점이었으며, 진로정체감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2.6 \pm 0.56$ 점이었(Table 1).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 및 진로정체감 수준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에 간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활 만족도와 전공만족도는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리더십 역량은 '높음', '보통', '낮음'으로, 대인관계는 ' 좋음'과 '보통 또는 나쁨'으로, 졸업 후 희망 진로는 '병원취업'과 '기타'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Table 2).

자아존중감은 학년( $F=3.31, p=.021$ ), 대학생활 만족도( $F=15.30, p<.001$ ), 전공 만족도( $F=18.58, p<.001$ ), 학업성취도( $F=5.56, p=.005$ ), 리더십 역량 인지( $F=18.70, p<.001$ ), 대인관계 인지( $t=5.76, p<.001$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생활을 만족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공만족도에서 만족과 보통인 경우가 불만족인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고, 학업성취도 평균이  $A(\geq 4.0)$ 인 경우가  $C(2.0\sim 3.0)$ 인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리더십 역량인지는 높거나 보통인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셀프리더십 수준은 대학생활 만족도( $F=7.72, p=.001$ ), 전공 만족도( $F=5.81, p=.004$ ), 학업성취도( $F=3.46, p=.033$ ), 동아리 활동여부( $t=3.16, p=.002$ ), 리더십역

량 인지( $F=9.01, p<.001$ ), 대인관계인지( $t=4.56,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만족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업성취도 평균이  $A(\geq 4.0)$ 인 경우가  $C(2.0\sim 3.0)$ 인 경우보다, 리더십 역량 인지가 낮은 사람보다 높거나 보통인 경우가 셀프리더십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진로정체감 수준은 진학동기( $F=6.63, p<.001$ ), 대학생활 만족도( $F=20.47, p<.001$ ), 전공 만족도( $F=33.84, p<.001$ ), 리더십역량 인지( $F=6.37, p<.003$ ), 대인관계 인지( $t=3.67, p<.001$ )에 따라 진로정체감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졸업 후 희망진로가 병원 간호사인 경우가 다른 직종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았다( $t=2.81, p=.005$ ). 사후분석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와 전공만족도의 경우 높은 경우가 보통과 낮은 경우보다 진로정체감이 높았고, 리더십 역량 인지가 높거나 보통인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 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 및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 $r=.33, p<.001$ ),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 ( $r=.49, p<.001$ ), 셀프리더십과 진로정체감 ( $r=.26, p<.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4.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입력(enter)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중 진로정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던 진학동기,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리더십역량 인식, 대인관계 인식, 졸업 후 희망 진로를 통제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 진학동기는 '적성 및 흥미'와 '이외 모두'의 두 그룹으로 구분하였고, 대학생활 만족도와 전공 만족도는 '만족'과 '보통 또는 불만족'으로 구분하였다. 리더십역량 인지는 '보통 또는 높음'과 '낮음'으로, 대인관계 인지는 ' 좋음'과 '보통 또는 나쁨'으로, 졸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Main Variables

(N=192)

Variables	Categories	n(%)	Mean ± SD
Sex	Male	27(14.1)	
	Female	165(85.9)	
Age(years)	20-24	150(78.1)	24.0±5.04
	25≤	42(21.9)	
Grade in college	1st	29(15.0)	
	2nd	37(19.3)	
	3rd	41(21.4)	
	4th	85(44.3)	
Religion	Yes	67(34.9)	
	No	125(65.1)	
Reason for choosing nursing major	Academic records at high school	8(4.2)	
	Recommendations from parents	38(19.8)	
	High employment rate	88(45.8)	
	Aptitude and interest	58(30.2)	
College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3(6.8)	
	Satisfied	89(46.4)	
	Moderate	68(35.4)	
	Unsatisfied	17(8.9)	
	Very unsatisfied	5(2.5)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Very satisfied	37(19.3)	
	Satisfied	94(49.0)	
	Moderate	53(27.6)	
	Unsatisfied	6(3.1)	
	Very unsatisfied	2(1.0)	
Grade point average (last year)	A (≥4.0)	43(22.4)	
	B (3.0 ~ <4.0)	135(70.3)	
	C (2.0 ~ <3.0)	14(7.3)	
Club activity	Yes	97(50.5)	
	No	95(49.5)	
Leadership activity experience	Yes	123(64.1)	
	No	69(35.9)	
Perception of leadership competency	Very high	8(4.2)	
	High	59(30.7)	
	Moderate	94(49.0)	
	Low	26(13.5)	
	Very low	5(2.6)	
Percep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Very good	29(15.1)	
	Good	105(54.7)	
	Moderate	56(29.2)	
	Bad	2(1.0)	
	Very bad	0(0)	
Preferred career after graduation (Choose only one)	Clinical nurse	152(79.2)	
	Public official or School nurse	24(12.5)	
	Nurse working abroad	16(8.3)	
Expected career in 10 years (Multiple responses)	Clinical nurse	155(80.7)	
	Public official	87(45.3)	
	School nurse	22(11.5)	
	Nurse working abroad	58(30.2)	
	Insurance corporation work	68(35.4)	
	Teaching assistant and researcher	10(5.2)	
	Research nurse at clinic	23(12.0)	
	Nursing home nurse	24(12.5)	
	Occupations not related to nursing	35(18.2)	
	Others	11(5.7)	
	Self-esteem		
Self-leadership			3.5±0.57
Career identity			2.6±0.56

SD=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Table 2. Self-Esteem, Self-Leadership and Career Ident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92)

Variables	Categories	Self-esteem		Self-leadership		Career identity	
		Mean(SD)	t / F (p) Scheffé	Mean (SD)	t / F (p) Scheffé	Mean (SD)	t / F (p) Scheffé
Sex	Male	3.0(0.47)	0.69 (.492)	3.4(0.58)	0.93 (.356)	2.6(0.60)	0.33 (.743)
	Female	3.0(0.54)		3.5(0.57)		2.6(0.56)	
Age(years)	20-24	3.0(0.53)	0.62 (.539)	3.5(0.56)	1.66 (.098)	2.6(0.53)	1.89 (.061)
	≥25	3.1(0.54)		3.4(0.59)		2.7(0.65)	
Grade in college	1st	2.9(0.62)	3.31 (.021)	3.5(0.43)	2.12 (.100)	2.6(0.64)	2.11 (.100)
	2nd	3.2(0.45)		3.4(0.51)		2.7(0.55)	
	3rd	2.9(0.61)		3.3(0.57)		2.4(0.59)	
	4th	3.1(0.46)		3.6(0.62)		2.6(0.52)	
Religion	Yes	3.1(0.53)	0.34 (.738)	3.5(0.59)	0.98 (.328)	2.6(0.60)	0.64 (.522)
	No	3.0(0.53)		3.5(0.56)		2.6(0.54)	
Reason for choosing nursing college	Academic records at high school	2.9(0.47)	0.44 (.725)	3.1(0.39)	1.83 (.143)	2.5(0.27)	6.63 (<.001)
	Recommendations from parents	3.0(0.57)		3.4(0.62)		2.5(0.61)	
	High employment rate	3.1(0.53)		3.5(0.56)		2.5(0.51)	
	Aptitude and interest	3.1(0.51)		3.5(0.56)		2.9(0.56)	
College life satisfaction	Satisfied <sup>a</sup>	3.2(0.45)	15.30 (<.001)	3.6(0.59)	7.72 (.001)	2.8(0.53)	20.47 (<.001)
	Moderate <sup>b</sup>	2.9(0.49)		3.3(0.46)		2.4(0.47)	
	Unsatisfied <sup>c</sup>	2.7(0.65)		3.3(0.63)		2.1(0.57)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Satisfied <sup>a</sup>	3.2(0.45)	18.58 (<.001)	3.6(0.57)	5.81 (.004)	2.8(0.50)	33.84 (<.001)
	Moderate <sup>b</sup>	2.8(0.53)		3.3(0.49)		2.3(0.45)	
	Unsatisfied <sup>c</sup>	2.4(0.66)		3.3(0.72)		1.8(0.35)	
Grade point average (last year)	A (≥4.0) <sup>a</sup>	3.3(0.56)	5.56 (.005)	3.6(0.67)	3.46 (.033)	2.8(0.62)	2.97 (.054)
	B (3.0-4.0) <sup>b</sup>	3.0(0.47)		3.5(0.53)		2.5(0.54)	
	C (2.0-3.0) <sup>c</sup>	2.8(0.77)		3.1(0.54)		2.5(0.52)	
Club activity	Yes	3.1(0.53)	1.35 (.180)	3.6(0.60)	3.16 (.002)	2.6(0.58)	0.30 (.766)
	No	3.0(0.52)		3.4(0.51)		2.6(0.55)	
Leadership activity experience	Yes	3.1(0.55)	0.40 (.690)	3.5(0.59)	0.30 (.763)	2.6(0.52)	0.17 (.864)
	No	3.0(0.52)		3.5(0.55)		2.6(0.64)	
Perception of leadership competency	High <sup>a</sup>	3.2(0.52)	18.70 (<.001)	3.7(0.59)	9.01 (<.001)	2.7(0.65)	6.37 (.003)
	Moderate <sup>b</sup>	3.0(0.44)		3.5(0.52)		2.6(0.50)	
	Low <sup>c</sup>	2.6(0.55)		3.2(0.54)		2.3(0.46)	
Percep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3.2(0.46)	5.76 (<.001)	3.6(0.56)	4.56 (.001)	2.7(0.56)	3.67 (.001)
	Moderate or bad	2.7(0.54)		3.2(0.49)		2.4(0.52)	
Preferred career after graduation	Clinical nurse	3.0(0.50)	0.28 (.781)	3.5(0.55)	0.38 (.706)	2.6(0.52)	2.81 (.005)
	Other	3.0(0.64)		3.5(0.64)		2.4(0.65)	

SD=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후 희망 진로는 '병원취업'과 '이외 모두'로 구분하여 가변수(dummy variables) 처리하였다. 먼저 선형 회귀 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값이 2.05 로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이 없었고, 진로정체감 점수의 산점도를 확인한 결과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다중 공선성은 공차한계가 0.62~0.97 사이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 팽창계수(VIF)는 1.06~1.63 사이로 10 이하를 만족하여 투입된 변수들이 상호 독립적이었다.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18.53, p<.001$ ), 모형의 설명력은 42.3% 이었다. 일반적인 사항을 통제하고 회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beta=.36, p<.001$ ), 셀프리더십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06, p=.354$ ). 통제된 변수 중에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진학동기가 '적성과 흥미 이외의 동기'를 기준으로 '적성과 흥미'인

경우에 유의하게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었고( $\beta=.27, p<.001$ ), 전공 만족도가 '불만족이거나 보통'인 경우를 기준으로 '만족'( $\beta=.27, p<.001$ )인 경우, 희망 진로가 '병원 이외의 진로'를 기준으로 '병원 간호사'인 경우( $\beta=.14, p=.018$ )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진로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는데, 자아존중감이 1단위 높아질 때 진로정체감은 0.36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 변수 중 대학생활 만족도, 리더십 역량 인지, 대인관계 인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Table 4).

#### IV. 논 의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과 진로정체감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

Table 3. Correlation among Self-Esteem, Self-Leadership and Career Identity of the Participants

(N=192)

Variables	Self-esteem	Self-leadership
	r (p)	r (p)
Self-esteem	1	
Self-leadership	.33( $p<.001$ )	1
Career identity	.49( $p<.001$ )	.26( $p<.001$ )

Table 4.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Identity

(N=192)

Variables	Categories	B	SE	$\beta$	t	p
(constant)		.80	.25		3.19	.002
Self-esteem		.38	.07	.36	5.48	<.001
Self-leadership		.06	.06	.06	.93	.354
Reason for choosing nursing college	ref: All except aptitude and Interest Aptitude and interest	.33	.07	.27	4.76	<.001
College life satisfaction	ref: Moderate or unsatisfied Satisfied	.10	.08	.09	1.24	.215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ref: Moderate or unsatisfied Satisfied	.32	.08	.27	3.87	<.001
Perception of leadership competency	ref: Moderate or high Low	-.03	.10	-.02	-.33	.739
Percep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ref: Moderate or bad Good	-.07	.08	-.06	-.88	.378
Preferred career after graduation	ref: All except clinical nurse Clinical nurse	.19	.08	.14	2.40	.018

Durbin-Watson=2.05,  $R^2=.447$ ,  $Adj-R^2=.423$ ,  $F=18.53$ ,  $p<.001$

ref.=reference; SE=standardized error



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자가 165명(85.9%)으로, 3-4학년 126명(65.7%)이 많았다. 간호학과 진학 동기가 취업이 88명(45.8%)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최근의 취업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간호직에 높은 직업 가치를 부여함(Kim & Kim, 2020)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평균 3.0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Lee (2019)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 과 Kwon (2018)의 결과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대학생활 만족도와 전공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Jung & An, 2019)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셀프리더십은 평균 3.5점으로 3-4학년 대상의 연구 결과(Kim & Ko, 2020)와 전체 학년 대상의 연구 결과(Kim et al., 2020)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진로정체감은 평균 2.6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3-4학년을 대상의 연구 결과(Kim & Ko, 2020)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Lee (2019)의 결과 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Koo, Jang, & Kang, 2022) 거주지역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본 연구대상자들의 전라북도 지역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진로정체감의 수준은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임상 실습을 경험하기 전인 1, 2학년이 임상 실습을 경험한 3, 4학년보다는 높았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Koo et al., 2022)와 상이한 결과이나, 중국의 Mao 등 (2021)의 연구에서 나타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3-4학년의 간호대학생은 대학 재학 중 2년여 동안 COVID-19 상황을 겪으면서 임상 실습의 부족과 학습방법의 변화로 불확실성(Koo et al., 2022)을 경험했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학과 교과과정 특성상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 교

과에 대한 심화된 공부와 임상 실습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간호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Jung, 2018). 이와 같이 임상 실습은 간호대학생을 대학에서 사회로 전환되는 중요한 단계로 이 경험의 결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진로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Wei et al., 2021). 그러므로 COVID-19와 같이 간호학 교육과정에 변화가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의 공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 온라인 실습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이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임상실습 대체 교육을 계획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 개발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진로정체감은 졸업 후 희망 진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Kim & Kim, 2020)와 같았고, 이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연구결과(Koo et al., 2022)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최근 COVID-19와 같은 상황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보여진 의료현장에서 간호와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의 연구(Tang et al., 2022)에서도 COVID-19 상황 발생 초기(2020년 1월)와 후기(2020년 3월~4월)에 진로정체감을 조사한 결과 후기에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시기에 간호사의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과 임상 현장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Koo et al., 2022).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및 셀프리더십은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이전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Kim & Ko, 2020; Kim et al., 2020; Nam & Lee, 2019). 이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높은 자기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며(Yang & Lee, 2012),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진로에 대해 준비하고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 자신감 있게 결정할 수 있게 하여(Gung & Seo, 2018) 진로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인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었지만,

셀프리더십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Yang & Lee, 2012)와 1-3학년의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i & Lee, 2019)의 결과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진로정체감의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자신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Nam & Lee, 2019), 학교생활 전반에 적응 능력이 좋으며,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Jung & An, 2019)는 결과를 지지한다.

자아존중감 외에도 진학동기가 '적성과 흥미'인 경우가 다른 진학동기를 가졌을 때 보다 진로정체감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Kim & Ko, 2020)에서와 같이 전공 선택 시 자기 확신이 강하고 진학동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진로정체감이 높았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 생활에 적응하여 전공 교육에 흥미를 갖게 되고 진로에 대한 목표와 확신이 생기게 된다(Kim & Ko, 2020)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셀프리더십과 진로정체감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회귀모형에서 다른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셀프리더십이 높으면 진로 관련 의사결정 및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이다(Gung & Seo, 2018; Park & Park, 2021). 본 대상자들의 셀프리더십 점수는 다른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 결과와 유사함(Kim & Ko, 2020; Kim et al., 2020)에도 불구하고 셀프리더십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를 본 연구에서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에,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셀프리더십과 진로정체감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셀프리더십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제한점으로 일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학교 간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서 간호교육인증 평가원에서 간호교육기관 인증을 득하고 입결 수준이 유사한 간호학과 6개교를 표출하였으나, 실습 환경이나 교육 환경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학년별 차

이를 통제하기 어려워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의 영향으로 수업 방식의 변화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간호인력의 이미지와 같은 사회적인 영향 요인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간호교육 측면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진학 동기,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희망 진로를 확인하여 이를 기반으로 간호교육에서 진로지도 및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간호대학생 시기에 간호전문인으로서 진로정체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취업하게 되면 간호직 업무수행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직업적 발전을 이루기 힘들다. 이는 간호직무에 대한 만족도 저하와 낮은 조직 몰입감으로 이어져, 결국 높은 이직 의도를 가질 수 있어 신규간호사의 조기 이직률 증가에 원인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학부 과정에서의 진로정체감 형성이 중요하여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전공 만족도, 진학 동기(적성과 흥미)와 졸업 후 희망진로(병원취업)로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을 위해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다양한 진로 분야의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저학년 시기부터 스스로 간호 전문직으로 진로정체감의 확립과 진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특성과 요구도를 고려한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지 않은 간호대학생에게 전공에 대한 인식과 간호사의 직무 관련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충분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개별 맞춤 진로상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자아존중감이 진로정체감의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셀프리더십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으므로 간호대학 입학부터 졸업 시까지 종단적으로 셀프리더십과 진로정체감의 변화를 파악하고 진학동기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변화를 확인하는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학년이 올라감으로 간호교육이 심화되고 학년별 진로정체감이 증가될 것을 가정했으나 학년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COVID-19 상황 및 간호교육과정을 포함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진로정체감의 영향 요인을 바탕으로 중재 후 효과를 비교하는 중재연구를 제안한다.

###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s.

### References

- Browne, C., Wall, P., Batt, S., & Bennett, R. (2018). Understanding perceptions of nursing professional identity in students entering an Australian undergraduate nursing degre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32*, 90-96. <https://doi.org/10.1016/j.nepr.2018.07.006>
- Choi Y. S. & Lee, E. J. (2019).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adaptability to university on career identity among male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9*(3), 583-593. <http://doi.org/10.35873/ajmahs.2019.9.3.055>
- Dancot, J., Pétré, B., Dardenne, N., Donneau, A. F., Detroz, P., & Guillaume, M. (2021).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irst-year nursing student self-esteem and dropout: A cohort stud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77*(6), 2748-2760. <https://doi.org/10.1111/jan.14806>
- Gilvari, T., Babamohamadi, H., & Paknazar, F. (2022). Perceived professional identity and related factors in Iranian nursing students: a cross-sectional study. *BMC Nursing, 21*(1), 279. <https://doi.org/10.1186/s12912-022-01050-6>
- Gung, H. S. & Seo, G. W. (2018).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Wellness, 13*(1), 287-294. <https://doi.org/10.21097/ksw.2018.02.13.1.287>
- Holland, J. J., Gottfredson, D. C., & Power, P. G.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1200. <https://doi.org/10.1037/h0077731>
- Houghton, J. D. & Neck, C. P. (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http://doi.org/10.1108/02683940210450484>
- Hu, H., Wang, C., Lan, Y., & Wu, X. (2022). Nurses' turnover intention, hope and career identity: the mediating role of job satisfaction. *BMC Nursing, 21*(1), 43. <https://doi.org/10.1186/s12912-022-00821-5>
- Im, B. M., Park, J. M., Kim, M. J., Kim, S. Y., Maeng, J. H., Lee, L. L., & Kang, K. A. (2015).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turnover experience of novice nurs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4*(4), 313-322. <https://doi.org/10.5807/kjohn.2015.24.4.313>
- J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 107-130.
- Jung, Y. M. (2018). A longitudinal Study on nursing students career identity, career

- adaptation, and satisfaction with major.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8), 89-103.  
<http://doi.org/10.22251/jlcci.2018.18.18.89>
- Jung, K. I. & An, E. S. (2019).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on problem solving abilit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1), 775-788.  
<http://doi.org/10.35873/ajmahs.2019.9.11.070>
- Kim, C. H. & Kim, J. Y. (2020).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belonging, satisfaction with major, and work values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3), 259-268.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3.259>
- Kim, D. R., Lim, H., & Kim, J. (2020). Factors Influencing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3), 369-377.  
<https://doi.org/10.15207/JKCS.2020.11.3.369>
- Kim, N. S. & Ko, Y. J. (2020).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1), 211-218.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11>
- Kim, Y. H. & Kwon, Y. C. (2018). The effect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nurse image, in nursing students perceiv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2), 215-224.  
<https://doi.org/10.14400/JDC.2018.16.2.215>
- Kim, Y. J. & Kim, M. Y. (2019). A study on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0), 369-379.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10.032>
- Koo, S. M., Jang, Y. M., & Kang, M. H. (2022).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new infectious diseases, ethical awareness in a pandemic situation, and nurse image on career identity in a pandemic situ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8 (4), 371-381.  
<https://doi.org/10.11111/jkana.2022.28.4.371>
- Kwon, Y. H. & Kim, C. N. (2002).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3(2), 216-229.
- Manz, C. C. (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585-600.  
<https://doi.org/10.5465/amr.1986.4306232>
- Mao, A., Lu, S. E., Lin, Y., & He, M. (2021). A scoping review on the influencing factors and development process of professional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and nurse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 official journal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 37(2), 391-398.  
<https://doi.org/10.1016/j.profnurs.2020.04.018>
- Nam, M. H. & Lee, M. R. (2019).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Self-Esteem on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7), 465-477.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7.042>
- Park, S. J. & Park, I. S. (2021). A Study on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1(3), 67-87.

- <https://doi.org/10.35273/JEC.2021.11.3.004>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50.
- Shin, Y. K., Kim, M. S., & Han, Y. (2009).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3), 313-340.  
<http://doi.org/10.16983/kjsp.2009.6.3.377>
- Shin, S. (2014).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elf-leadership, self-concept, career identity, and career maturity.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7(1), 23-46.  
<http://doi.org/10.22955/ace.17.1.201402.23>
- Tang, M., Sun, Y., Zhang, K., Luo, R., Liu, Y., Sun, H., & Zhou, F. (2022). Associated factors of professional identity among nursing undergraduates during COVID-19: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ciences*, 9(1), 107-113.  
<https://doi.org/10.1016/j.ijnss.2021.09.005>
- Tessema, M. T., Ready, K., & Yu, W. (2012).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major curriculum: Evidence from nine years of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2), 34-44.
- Wei, L. Z., Zhou, S. S., Hu, S., Zhou, Z., & Chen, J. (2021). Influences of nursing students' career planning, internship experience, and other factors on professional identity. *Nurse Education Today*, 99, 104781.  
<https://doi.org/10.1016/j.nedt.2021.104781>
- Yang, Y. O. & Lee, S. O. (2012). The 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2), 979-989.

ABSTRACT

##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Yu, Min Young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Lee, Suk Jeong (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self-esteem, self-leadership,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identity. **Methods:**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of 192 students from six nursing colleges. The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wo-sample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es. **Results:** The career identity correlated with self-esteem and self-leadership. A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self-leadership and self-esteem. The factors influencing career identity were self-esteem, satisfaction with the major, motivation (aptitude and interest), and desired career after graduation (hospital employmen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42.3% in total. **Conclusion:** To develop a strong career identity for nursing students, it is essential to provide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increase self-esteem, improve awareness of the major,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nurses, and provide opportunities to explore career options.

**Key words :** self esteem, leadership, professional identity, nursing students